

‘우크라이나 위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민지영 구미·유라시아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jymin@kiep.go.kr, Tel: 3460-1095)

차 례 ● ● ●

1. 최근 러시아의 경제성장 둔화
2. ‘우크라이나 위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2000년대 연평균 5.5%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러시아는 2012년 3.4%에 이어 2013년 1.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근 성장둔화를 겪고 있음.
 - 2013년 러시아 경제의 주요 성장둔화 요인은 투자 감소, 소비성장 둔화,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등임.
 - 2014년 연초에도 투자 감소, 소비성장 둔화 등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에도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경제는 풍부한 외환보유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소규모의 재정수지 적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위기에 당면하지는 않았으나 환율하락의 지속, 높은 물가상승률, 경상수지흑자 감소세 등으로 인해 경제기초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한편,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 외환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자관계는 물론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경제성장 둔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 위기’ 심화는 환율상승, 주가급락 등을 야기함으로써 러시아 외환·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있음.
 -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양국의 무역관계 악화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직접투자규모가 적지 않고, 러시아 은행들의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익스포저도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이외에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러시아와 서방간의 갈등고조가 러시아의 대EU 에너지 수출 감소, 러시아 기업운영 여건 악화 등으로 이어질 경우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음.
 - 또한, 크림 반도 합병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비용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임.
- ▶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악영향은 러시아의 경제성장 둔화 심화는 물론 경제침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경기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1. 최근 러시아의 경제성장 둔화

- 2000년대 연평균 5.5%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러시아는 2012년 3.4%에 이어 2013년 1.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근 성장둔화를 겪고 있음.
- 2013년 경상수지 흑자는 약 330억 달러로 전년도 720억 달러보다 54.2%감소하였음.
-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수입증가, 금속 및 광물 가격하락과 수출감소 등으로 인해 흑자 규모는 전년도보다 7.8% 감소한 1,773억 달러를 기록함.
- 해외여행 급증(26.4%) 등으로 서비스수지는 약 59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한편, 순자본유출액은 627억 달러로 전년도 546억 달러보다 증가하였음.
- 2013년에는 물가상승률이 증가하고, 소매여신증가율과 실질임금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소비증가가 다소 주춤하였음.
- 물가상승률은 2012년 5.1%에서 2013년 6.8%로 증가하였으며, 소매여신증가율은 2012년 39.4%에서 2013년 11월 29.1%로, 실질임금상승률은 2012년 8.2%에서 2013년 5.2%로 하락하였음.
- 소매거래증가율은 2012년 6.3%에서 2013년 3.9%, 상품·서비스 지출증가율은 2012년 6.2%에서 2013년 3.9%로 하락하였음.
- 실업률은 2013년 12월 말 기준 5.6%로 낮은 수준이나 최근 성장둔화와 함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투자감소도 성장둔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함.
- 고정자산투자는 산업별로 채굴, 운송,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재고투자의 감소가 2012년(-28%)에 이어 2013년(-30%)에도 계속되었음.

표 1. 러시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2008~1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GDP(십억 달러)	1,660.85	1,222.65	1,524.92	1,899.09	2,029.81	2,117.83
실질 GDP 성장률(%)	5.248	-7.8	4.5	4.3	3.4	1.3
소비자물가상승률(% , 평균)	14.1	11.7	6.9	8.4	5.1	6.7
산업생산증가율(%)	2.1	-10.8	8.2	4.7	2.6	0.3
고정자산투자증가율(%)	9.8	-17.0	6.0	6.2	6.6	-0.3
정부부채(GDP 대비 %)	7.9	11.0	11.0	11.7	12.5	14.1
경상수지(GDP 달러)	6.3	4.1	4.4	5.1	3.7	2.9
수출(백만 달러)	466.3	297.2	392.7	515.4	528.0	523.4
수입(백만 달러)	291.9	191.8	256.2	332.2	344.4	352.5
환율(루블/US\$, 평균)	24.85	31.74	30.37	29.40	31.08	31.85
실질임금상승률(%)	11.5	-2.8	5.2	3.5	8.4	5.2
실업률(%)	6.3	8.4	7.3	6.5	6	5.7

자료: IMF, 러시아 경제개발부(검색일: 2014. 3. 6).

■ 작년에 이어 2014년 연초에도 경제 성장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지난 2월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는 2014년 1월 GDP 성장률이 전월대비 -0.5%, 전년동기대비 0.7%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투자부문은 -7%(전년동기대비), 실질임금은 -1.5%를 기록하였으며, 소매거래증가율은 2.4%로 둔화되었음.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현안 자료에서는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로 인한 양국의 관계악화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2. ‘우크라이나 위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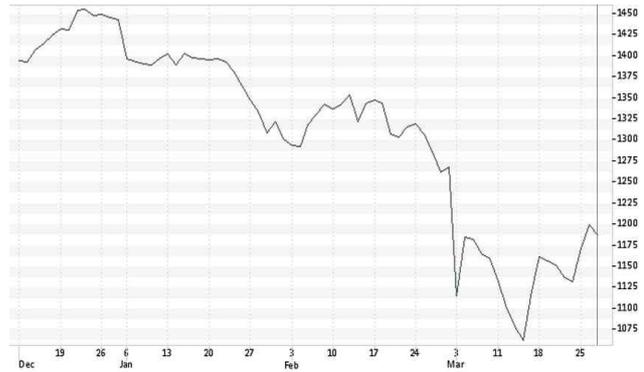
가. 외환·주식시장 불안정성 고조

■ ‘우크라이나 위기’ 심화가 환율상승, 주가급락 등을 야기하면서 러시아 외환·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음.

- 3월 1일과 2일 러시아군이 크림지역을 장악하면서 지역정세가 불안해지자, 3일 달러대비 루블화의 가치가 36.8로 1.43%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10% 이상 급락하였음.
- 주가하락으로 인해 하루만에 6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소치올림픽에 투자한 510억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임.¹⁾
-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추가적인 물가상승과 자금이탈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6개월 동안 유지해온 기준금리를 5.5%에서 7.0%로 인상하였음.
- 이후 3월 16일 예정되었던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러시아와 서방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러시아의 화폐가치 및 주가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음.
- 3월 6일 달러당 36.0루블이었던 환율은 19일 36.5루블까지 상승했으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러시아 주가지표 RTS는 주민투표를 앞둔 14일 1,064.19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여 26일 1,198.89를 기록하였음.
- 러시아 루블화 환율은 2014년 들어 약 10% 상승했으며, 주가는 약 14% 하락했음.

1) Time(Mar. 3, 2014), “4 reasons Putin is already losing in Ukraine.”

그림 1. 러시아 루블화 환율 및 주가지표(RTSI) 추이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www.cbr.ru, 검색일: 2014. 3. 27).

자료: 모스크바 주식시장(www.micex.com, 검색일: 2014. 3. 27).

■ 또한 자금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

- 2014년 1/4 분기에 순자본유출액은 650억~700억 달러로 추산됨.²⁾
- 올해 1월과 2월에 각각 170억 달러, 160억 달러의 순자본유출을 기록했음.³⁾
- 3월에만 320~370억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위기’가 러시아내 자본유출을 촉진시킨 것으로 판단됨.
- 서방과의 갈등으로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와 함께 러시아 신용도도 하락하고 있음.
- 3월 20일 S&P가 지정학적 위험도 증가가 자금이탈과 경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러시아 신용등급 전망을 BBB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⁴⁾ 다음날 Fitch도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하였음.⁵⁾
- 27일 S&P는 가스프롬, 로스네프트, 트란스네프트, 루코일 등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정부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용등급 역시 하향조정하였음.⁶⁾
- 최근 러시아 국채의 CDS 프리미엄도 지난 10개월간 최고치인 278bp까지 올라가는 등 러시아 국채 신용도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⁷⁾

2) *Financial Times*(Mar. 24, 2014), “Russia braced for \$70 bn in outflows.” 당초 러시아 르네상스 캐피털은 2014년 1/4 분기 자금이탈 규모가 5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으나 실제 유출액이 예측치를 상회한 것으로 판단됨. 런던의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이보다 많은 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음. 『EU·미국 "러시아 추가 제재"... 세계 경제에 먹구름』, 『한국일보』(2014년 3월 17일).

3) *Reuters*(Mar 3, 2014), “Ukraine financial fall-out exposes Russia’s economic weakness.”

4) *Bloomberg*(Mar 21, 2014), “Russia Outlook Cut to Negative by S&P on U.S. Sanctions.”

5) *Bloomberg*(Mar 21, 2014), “Russia’s Credit Outlook Cut as U.S., EU Widen Sanction Lists.”

6) *Bloomberg*(Mar 27, 2014), “Russian Energy Giants’ Credit Outlooks Lowered by S&P.” Fitch는 24일 15개 러시아 주요은행의 신용등급전망을 하향조정한 바 있음. *Reuters* (Mar 24, 2014), “Fitch Revises 15 Russian Banks’ Outlooks to Negative on Sovereign Change.”

7) *Bloomberg*(Mar 24, 2014), “Putin’s Debt Is Junk to Traders on Crimea: Russia 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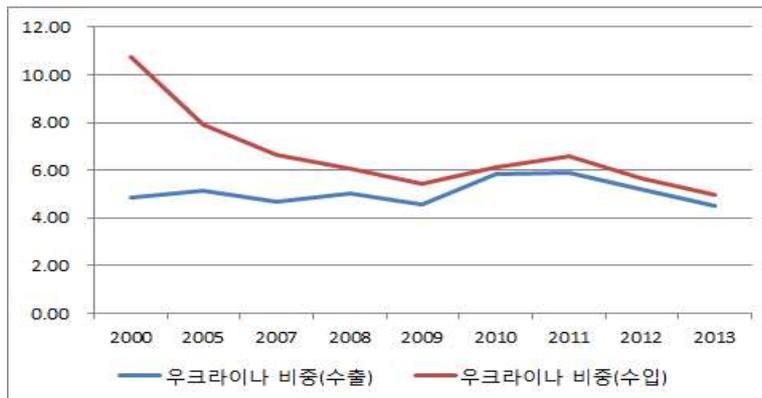
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경제관계 악화

■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양국관계 악화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우크라이나는 2013년 러시아 무역에서 4.7%를 차지하였음.
- 2013년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수출액은 23.8억 달러, 수입액은 15.8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약 8억 달러에 그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주로 원자재(에너지), 화학제품 등을 수출하며, 우크라이나로부터 기계·장비 및 운송수단, 금속제품 등을 수입함.⁸⁾
- 2000년대에 우크라이나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수입비중 감소에 기인함(그림 2).
- 2013년 양국의 무역액은 전년도대비 12.3% 감소하였는데, 수입이 12.0%, 수출이 12.6% 감소하였음.

그림 2. 러시아 총수출입에서 우크라이나의 비중

(단위: %)



주: 2013년은 러시아 관세청(www.customs.ru) 통계.
자료: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www.gks.ru, 검색일: 2014. 3. 6).

■ 공식통계에서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직접투자 금액 및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기업들의 우회투자 경향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자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2012년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직접투자액은 6억 달러로 총해외직접투자액의 1.3%(16위)를 차지했으며, 누적액 비중도 약 1.3%(12위)였음.
- 2013년 기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4대 직접투자국(누적)이며, 키프로스는 1위, 네덜란드는 3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7위를 차지하였음(표 2).

8) 러시아 대외경제정보포털사이트(www.ved.gov.ru, 검색일: 2014. 3. 6).

표 2. 2013년 주요국의 대우크라이나 직접투자 금액 및 비중(누적액)

(단위: 백만 달러)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중
합계	58,156.9	100
1 키프로스	19,035.9	32.7
2 독일	6,291.8	10.8
3 네덜란드	5,561.5	9.6
4 러시아	4,287.4	7.4
5 오스트리아	3,257.5	5.6

자료: 우크라이나 통계청(www.ukrstat.org, 검색일: 2014. 3. 4).

-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이 키프로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회투자하는 경우가 많아⁹⁾ 실제 직접투자액은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음.
 - o 특히, 우크라이나의 최대 직접투자국이 러시아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키프로스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정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3월 14일 러시아 대통령 고문인 글라지예프(S. Glazyev)는 러시아 기업들의 직접투자가 우크라이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절반을 차지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¹⁰⁾
 - o 이 의견과 표 2의 내용을 종합할 때 러시아의 실제 직접투자는 약 200~29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 한편,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액은 2012년 약 1억 달러(전체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의 0.2%)로 미미한 수준임.

■ 러시아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은행, 금속, 이동통신, 석유·가스 등의 다양한 부문에 진출해있음.¹¹⁾

- 은행 부문에는 스페르뱅크, 가스프롬뱅크, 대외경제은행(VEB), 대외무역은행(VTB) 등 주로 러시아 국영은행들이 진출해있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체 은행 자산의 12%를 차지함.
- 금속 부문에는 RusAl(알루미늄), VSMPO Avisma(티타늄), Evraz(철강), Mechel(철강) 등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규모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 이동통신 부문에는 MTS과 VimpelCom이 진출했음.

9) 다수의 러시아 기업들은 키프로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회투자(trans-shipping investment) 또는 왕복투자(round-tripping investment)를 하고 있음. 이재영 외 3인(2012),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pp. 78-80, KIEP.

10) ITAR-TASS(Mar 14, 2014), “Russian business accounts for half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Ukraine-adviser.”

11) Moscow Times(Mar 12, 2014), “Russian Firms Monitoring Ukraine Exposure.”

- 우크라이나 시장은 MTS 기업이익(EBITDA)의 12%(그룹 총수익의 10%)를 차지하며, VimpelCom 기업이익의 8%를 차지함.
- 석유·가스 부문에는 Rosneft, Tatneft 등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제1, 2의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 이 외에 쉘마(Summa)라는 투자기업이 농업부문에 진출했음.

■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채권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위기’에 300억 달러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파악됨.¹²⁾

-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은행들로부터 진 빚이 280억 달러 이상, 가스통과료 선불금 20억 달러 이상을 합해서 러시아에 진 부채가 300억 달러를 초과한다고 밝힌 바 있음.¹³⁾
 - 이는 2월 26일 우크라이나 과도정부가 발표한 총부채 1,400억 달러의 약 22%를 차지함.¹⁴⁾
-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대출자금을 지급한 스베르뱅크, 가즈프롬뱅크, 대외경제은행(VEB), 대외무역은행(VTB) 등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파악됨.
- 이 밖에 우크라이나의 나프토가스가 러시아의 가즈프롬에 지급하지 못한 가스비 18.9억 달러가 부채로 남아 있는 등¹⁵⁾ 양국 기업간 부채문제도 존재함.

다. 크림 반도 합병비용과 서방과의 관계 악화

■ 크림 반도 합병은 경제적 지원금, 기반시설 개·보수 및 은행 및 공공시설 이전 비용 등이 요구되어 러시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크림 반도 합병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매년 지원해온 이 지역 재정의 약 40%인 약 184억 루블(5억 달러)을 러시아가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에 더해 연간 연금예산 700억 루블(19억 달러)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¹⁶⁾
 - 러시아는 이미 크림 자치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자금 1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추가적으로 50억

12) *Moscow Times*(Dec 5, 2013), “Russian Banks Exposed in Ukraine’s Political Crisis.”

13)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Ноябрь 26, 2013), “Российско-итальянские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http://kremlin.ru/news/19701>(검색일: 2014. 3. 10).

14) *Itar-tass News Agency*(27. Feb, 2014), “Ukraine’s aggregate external debt reaches 80% of GDP.”

15) *The Wall Street Journal Market Watch*(Mar 7, 2014), “Gazprom threatens to cut Ukraine gas over debts.”

16) *Vancouver Sun*(Mar 19, 2014), “Russia’s takeover of Crimea comes at a cost.”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러시아가 지불하게 되는 부수적인 비용까지 모두 고려할 때 2014년에만 최소 4,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기사도 소개되었음.
Businessneweurope(Mar 18, 2014), “Crimea will cost Russia at least \$400bn this year.”

달러 규모의 투자자금을 투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¹⁷⁾

- 악쇼노프(S. Aksyonov) 크림 자치공화국 총리는 이미 2014년 3월 17일 러시아가 크림 자치공화국에 4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음.
- 또한 크림 반도와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건설을 위해 500만 루블(약 13억 달러)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보임.¹⁸⁾
- 201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사업에 대해 합의했으나 그동안 지연되어 왔으며, 2013년 11월 우크라이나와 EU의 협력협정 협상이 중단된 이후 러시아가 교량건설을 서두르고 있음.

■ 또한 러시아와 EU간 천연가스 수송에서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수송통로인 점과 최근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EU와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놓인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러시아의 대EU 에너지 수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음.

- EU는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2012년 러시아의 대EU 수출에서 에너지 자원의 비중은 76.3%이었음.¹⁹⁾
- 2012년 EU가 수입한 천연가스 11.0 tcf의 34%를 러시아가 공급하였으며,²⁰⁾ 이중 절반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함.
- 러시아와 EU 간의 천연가스관은 2014년 현재 총 7개(Brotherhood/Union, Polar Lights, Transbalkan, Finland Connector, Yamal, Bluestream, Nordstream)이며, 이 중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3개의 가스관이 전체 수송가능량의 66%를 차지함.²¹⁾
- 양측의 무역·에너지 협력 관계가 긴밀하여 최근 고조되고 있는 갈등이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크라이나 및 EU와의 관계악화가 러시아의 대EU 에너지 수출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은 있음.²²⁾

■ 최근 서방국가들은 러시아 주요인사에 대한 경제제재²³⁾에 이어 러시아 기업·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17) *РосБизнесКонсалтинг* (Март 19, 2014), “Премьер Крым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зарезервировало около 1,1 млрд долл. для Крыма.”

18) *Moscow Times*(Mar 6, 2014), “Russian Expedite Plans for \$1.3Bln Bridge to Crimea.”

19) “EU, Trade in goods with Russia” (2013. 11. 7),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september/tradoc_113440.pdf, 검색일: 2014. 3. 6).

20) Ratner, M., Paul Belkin, Jim Nichol, Steven Woehrel(2013), “Europe’s Energy Security: Options and Challenges to Natural Gas Supply Diversification,” CRS Report for Congress, p. 6.

21) *Russian analytical digest* 75/10, “The Russian-Ukrainian Gas Trade,” p. 10. Table 1. 내용을 참고해서 저자가 재작성.

22) *ITAR-TASS*(Mar 4, 2014), “Gazprom says disruption of gas supplies to Europe possible.”

23) 미국은 3월 17일 러시아 주요인사 7인에 대한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을 결정했으며,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선언 이후인 20일 제재대상 20인(은행권 인사 1인 포함)을 추가하였음. EU는 러시아와 비자면제 협정 및 협력 협정 체결 협상을 중단하고, 주요인사 21인(크림 자치공화국 인사 8명 포함)에 대해서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가한 데 이어 21일 제재대상 12인을 추가하였음. 캐나다도 17일 러시아 및 크림 자치공화국 인사 10인에 대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서방의 움직임에 적극 가세하고 있음. 이에 러시아는 각각 9명, 13명의 미국과 캐나다 주요인사에 대해서 러시아 여행을 금지하는

검토하고 있어 서방과 러시아간의 대립으로 인해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대출 조건 및 기업운영 여건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미 외국계은행들은 러시아에 대한 대출한도를 축소시켰으며, 따라서 현재 10여 개의 러시아 대기업들이 유럽, 미국, 일본 등 외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모색하고 있는 80억 달러 규모의 은행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됨.²⁴⁾
- 러시아 기업의 외채총액은 약 7,000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대부분이 서방은행들로부터 대출되었음.²⁵⁾
 - o 러시아 기업들은 2012년 380억 달러, 2013년 520억 달러의 외채를 도입하였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o 시티그룹, 아메리카은행(BOA), JP모건, Chase and Wells Fargo 등 미국 은행들은 러시아에 240억 달러 이상 노출되어 있음.
 - o 한편, 러시아 기업들은 프랑스계 은행으로부터 510억 달러, 독일계 은행으로부터 240억 달러, 영국계 은행으로부터 190억 달러, 네덜란드계 은행으로부터 180억 달러를 대출한바, 유럽계 은행의 노출 정도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임.²⁶⁾
- 따라서 서방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기업의 대출여건 악화, 자산동결 조치 등은 러시아의 대출금 상환 불능을 야기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국가들의 경제에도 미칠 수 있음.
- 또한, 기업들의 운영여건 악화는 생산 및 수출 감소로 이어져 무역부문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²⁷⁾

3. 전망과 시사점

-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악화는 러시아의 무역, 투자, 주식시장 등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이는 러시아의 거시경제기초 악화와 성장둔화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이미 지난 2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연초에 지속되고 있는 경제성장 둔화를 고려하여 2014년 경제성장률이 1.5~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물가상승, 소비심리 위축 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할 수도 있음.
- o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및 재정 수입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였음. 한편, 24일 발표된 G7의 헤이그 선언에서 러시아의 G8에서 제외가 확실시되었음.

24) *Moscow Times*(Mar 6, 2014), “8 Bln in Loans For Russian Companies Endangered By Ukraine Turmoil.”

25) *Moscow Times*(Mar 13, 2014), “650\$Bln of Corporate Debt Intertwines Russian and the West.”

26) *CNN*(Mar 27, 2014), “Western Banks Lend Billions to Russia.”

27) *Business and Economic Reports*(Mar 11, 2014), “How might sanctions affect Russia?”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입부담 가중, 러시아 원자재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주로 식료품, 의류, 의약품, 기계 및 운송장비 등을 수입하기 때문에 루블화의 약세로 인한 수입 감소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이들 상품에 대한 수입비용을 증가시켜 무역수지 흑자 감소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²⁸⁾
- 우크라이나와의 무역관계 악화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직접투자액과 대출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양국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크림 반도에 대한 지원금 이외에 서방과의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²⁹⁾

- 현재까지 취해진 러시아 주요인사에 대한 경제제재와 G8에서 러시아 제외 등의 조치는 경제적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고 판단됨.
- 서방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정치인, 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적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8개국의 정상들이 국제현안을 논의하는 대화협의체인 G8에서 러시아가 제외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지위 및 이미지 하락 등 상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됨.
-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이미지 하락, 투자자의 신뢰상실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자금이탈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의 지속 또는 악화는 자금이탈현상 심화와 투자부진 지속으로 이어져 러시아 경제 약화를 가속화할 것임.
-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대출 조건 및 기업운영 여건 악화도 생산 및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러시아 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다만 서방의 경제제재가 러시아의 기업·은행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와 무역, 투자, 금융시장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경제제재가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실제로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3월 24일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제재를 강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향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임.
- 같은 날 NATO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및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한 합병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러시아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음.

28) KCRA.com(Mar 6, 2014), "Russia paying price for Ukraine crisis."

29) 3월 26일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위험이 낮게 나타날 경우 올해 러시아 성장률은 1.1%, 위험이 높을 경우 -1.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World Bank(2014), "Confidence crisis exposes economic weakness," Russia Economic Report No 31, pp. 23-26. (March)

- 위의 사항들을 고려해볼 때, 서방과 러시아간의 공방이 계속될 수는 있으나 강경한 제재조치와 맞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그러나 만약 강경한 제재조치가 단행될 경우 러시아 경제가 경제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세계경기회복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 특히 러시아가 서방의 확대된 경제제재에 대해 자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 및 곡물 수출을 중단하는 등 맞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성장둔화 심화 또는 경기침체에 이를 경우 한국은 무역, 투자 등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국제원자재가격 및 주식시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루블화 가치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가 한국의 대러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불안정한 지역정세로 인해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가 감소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의 무역과 투자에서 러시아는 2013년 기준으로 각각 2.1%(226.5억 달러), 0.5%(1.2억 달러)를 차지하는바, 이들을 통한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국경제는 상황에 따라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세계경기 둔화 또는 침체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KIEP**